

매체 소비 사회의 감성과 주체의 연출*

최혜경** | 전남대

< 목 차 >

1. 사라진 교점(node)과 허무한 주체들
2. 새로운 교점과 주체의 이중성(二重性)
3. 주체와 연출의 유효한 상관관계
4. 각자도생(各自圖生), 프레카리아트(precaiat)와 연출적 주체
5. 나오며

국문초록

오늘날 매체와 정보 중심의 사회는 개인의 감성이 고유하고 자율적인 범주에 속해 있다는 통념의 상용성을 상실했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 평가나 정동의 변화는 판매·유통되는 주력 디지털 매체의 생산물에 의해 비(非)자율적으로 편집되고 있다. 이 글은 자율적이면서 개별적인 감성을 구성함이 불가한 사회 혹은 다양한 집합적 감성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편집만이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피동성을 문제적으로 본다. 개인의 고유한 인식과 감성보다 집합적 감성의 다기한 수집 결과가 곧 개성이자 변별적 특성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사

* 이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회적 사태에 대한 민감성과 자율적 판단력을 상실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공감과 연대의 체계가 노동과 일상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의 개인들은 고립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기호자본의 금융화에 의해 개인들이 결합할 수 있는 인식적 혹은 물리적 장(場)으로서 교점(node)을 상실한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2장에서는 그러나 자의식의 공감과 인식적 공유에 대한 필요에 의해 개인이 ‘거리’와 ‘광장’과 같은 실체의 규합 공간과 다른 형태, 즉 디지털 매체 공간을 통한 주체 구성을 욕동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집적 양상이 그러한 소통의 욕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자본에 의한 개인 단절 혹은 소외 현상과 동시에 개인의 규합된 감성이 배태되는 이중성이 도출됨을 논의했다.

3장에서는 자본화된 정보의 한정적 소비 주체로 기능하는 개인들이 매체의 주된 상업 전략으로 사용되는 ‘연출’의 속성을 정보 재구성 주체 입장에서 차용하는 경우에 유효한 상관관계가 도출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정체성 혹은 감성의 불안정성과 관련한 한국 사회 프레카리아트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 주체에 관한 논의를 자기 서사 연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의 쟁점은 정보화된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실체’로서 주체의 구성 논의와 더불어, 한국 사회 노동의 축이자 감성의 축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다. 한국 사회 프레카리아트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감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된 세대 감성을 규명하고 감성과 행위의 구조적 관계를 조망하는 행위이자 불안정한 감성의 장(場)을 변환·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출의 전초(前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주제어: 매체 소비 사회, 기호자본주의, 주체, 연출, 연출적 주체, 감성, 프레카리아트

1. 사라진 교점(node)과 허무한 주체들

오늘날의 사회는 매체와 정보로 쌓아올려진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다. 치밀하게 조직된 폐쇄적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왜소한 육체 위에 분절된 정보의 조각들을 엮고 나르며 노동한다. 삶이 지향하는 바가 모호한 채 자신의 가치 기준과 무관한 노동의 결실과 반복적으로 조우한다면 그러한 삶은 거대담론의 권력에 의해 순장된, 일종의 견고한 무덤 속과 같을 것이다. 살아있되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에 대한 이 같은 비유가 과혹한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우월해 보이는 범주 앞에 ‘나, 개인’이라는 매우 축소된 존재들이 은닉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체와 정보 중심의 사회는 개인의 감성이 고유하고 자율적인 범주에 속해 있다는 통념의 상용성을 상실했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 평가나 정동의 변화는 판매·유통되는 주력 디지털 매체의 생산물에 의해 비(非)자율적으로 편집되고 있다. 외부적 감성 구성의 사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감성의 둔감화와 수동성을 경험하는 파편화된 개인들. 이 글에서 오늘날 사회의 문제 추이를 조감하려는 시선은 바로 이 두 개의 창 앞에 있다. 이 글은 자율적이면서 개별적인 감성을 구성함이 불가능한 사회 혹은 다양한 집합적 감성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편집만이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피동성을 문제적으로 본다. 개인의 고유한 인식과 감성보다 집합적 감성의 다기한 수집 결과가 곧 개성이자 변별적 특성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사태에 대한 민감성과 자율적 판단력을 상실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개인은 전통 사회에서 물리적 대상의 관찰이나 경험의 성찰적 재구성을 통해 구성되었던 실존 의식의 서사보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미지화 또는 약호화된 인식들에 대해 수월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얻는 일종의 공통감과 연대감을 통해 정체감 형성의 욕구

를 충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개인들이 공적(公的) 개체의 자질이나 역할 상을 확보하고 있거나 구체화하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으로 읽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감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오늘날의 개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감각과 인지 기관을 통해 외부의 정보와 변화를 탐색하는 실제적 능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탐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통찰하는 개별적 정보처리장치인 고유 감성이 ‘선택 또는 반응’의 형식으로 단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둔감화 혹은 무감화 되고 있는 개인의 감성과 이로 인해 오늘날의 개인이 지니게 된 사회적 생존의 취약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파편화된 개인과 이들의 불안정한 의식에 관한 비판적 진단은 이탈리아 사회비평가이자 미디어 전문 학자인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의 견해에서 더욱 정치하게 나타난다. 그는 개인의 감성과 더불어 개인들이 접촉하거나 결집하는 가운데 생성되었던 집합적 감성이 파편화되거나 ‘실종’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징후와 원인을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그는 오늘날의 사회가 지니는 특성을 “물질적·비물질적 사물의 생산 과정이 디지털 기호의 조합·재조합으로 대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호 작용(기호들의 발산)과 경제의 영역이 교차되는 것”¹⁾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과 경제적 교환의 기호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기호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명명한다.

기호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기호적·탈영토적 성격을 띤 기술-언어 장치의 창조와 상품화에 집중한다. 기호자본주의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축적과 생산적 노동은 모두 네트워크화 된 과정으로 변형되고, 파편화되며, 재조합된다. 그 과정 안에서 주체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취약하고, 불확실한 존재가 되어간다. 그 과정 안에서는 자본가 이든 노동자이든 모조리 물 개성화 과정에 종속되며 그저 (필요에 따라) 재조합될 수 있는 단순한 기능들로 전락하게 된다.²⁾

베라르디에 의하면 오늘날의 경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대신 형이상의 영

1) Berardi, Franco, 정유리 역,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보노동의 정신병리』, 난장, 2013, 68쪽.

2) 위의 책, 같은 쪽.

역에서 인식되거나 기호의 형태로 조우된다. 탈영토적 특성을 지니며 전 지구적 혹은 범 시대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호자본은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필요에 의해 불현듯 나타나고 사라지며 특정한 개인과 고정된 장소에 정착되지 않는다. 베라르디는 이러한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문제적인 것으로 지적한다. 즉 기호자본이 문제적인 이유는 개인의 정신과 사회적 결합의 관계를 불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대상이며 전 지구적 예비 소비자를 확보한 그것 앞에 개인은 왜소한 채로 소외되는 몰(沒)개성적 정보노동자로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집합적 인식의 불안정함은 접속의 경로에서 끊임없이 정신없도록 서로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로를 (피와 살을 지닌 인간으로서)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 우리의 지각, 이야기하기, 생산 속에서 시간은 일종의 프랙탈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시간은 보편적 언어기계에 의해 끊임없이 재조합되어 작동되는 호환 가능한 조각들로 산산조각났다. (...) 노동은 대도시나 지구의 접속점들 사이를 맹렬히 이동하고 있으며, 노동의 궤적들은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만 분기하고 재접속하면서 순간적으로 조우할 뿐이다.³⁾

베라르디가 지적하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위에서 서술되는 것처럼 개인들이 상호 접속하는 경로로부터 이탈하여 부유하는 인간들의 시간에서 비롯된다. 매체의 정보 흐름이 사회를 운용하는 중요 기반이 된 오늘날 정보중심사회에서 인간은 정보 이외의 것들이 지닌 중요성의 인식을 잃었다. 즉 각 개인은 거대한 기호자본의 계획적 흐름 속에서 필요에 따라 신속히 소용될 수 있는 일종의 부품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신자유시대의 기성 노동자들과 이들의 삶과 부를 유지시키는 사회의 경제 패턴은 새롭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용될 필요가 없는 잉여의 세대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사회경제 패턴의 적응자로서 시장의 내력벽을 담당하는 기성 노동자들이나, 이동하는 노동의 축을 나타내며 정보 자본을 생산·유통하는 새로운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자본화된 정보에 매개된 노동력 제공과 수주(受注)

3) 위의 책, 75쪽.

의 관계가 근대 산업 사회에서처럼 일정한 체계를 구축한 속에서 지속성을 지니며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정적 하부 체계는 오히려 기호 자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변형의 대상이다. 전 지구적 예비 노동자를 확보한 기호자본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집합적 형태와 고정된 제공 루트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감각, 이해관계의 대립 등 불필요한 문제점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해왔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공간으로서 ‘일터’와 ‘일상’의 물리적 접촉 가능성이 축소된 사회의 작동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위의 글에서 베라르디가 지적한 “서로를 (피와 살을 지닌 인간으로서)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의 감성과 상통한다. 이것은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지향성이 혼미한 데서 오는 ‘허무(虛無)’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감수성에 의해 감지되는 바도, 신체반응과 인지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감성적 결과도 모호한 의식 상태에서 인간은 초(超) 자극적 정보를 지향하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시간 위에 부유한다. 그리고 그 부유하는 양상은 매체 공간 속에서 무기력, 비관, 냉소, 포기 등으로 점철된 ‘얼굴 없는 인간들’의 단순화된 행위-‘선택(클릭)’ 또는 ‘반응(댓글)’-를 통해 발견되곤 한다.

기호자본주의가 근대적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산출된 경제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이것을 인간 혹은 개인들의 집합이 지닌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호자본주의는 몰(沒) 개성적 이념으로서 자본과 이윤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자본주의의 작동 체계 아래 삶을 운용하는 개인은 위 베라르디의 언급처럼 “자본가이든 노동자이든 모조리 몰 개성화 과정에 종속되며”, 넓은 선택지를 확보한 자본가 상층부에 속한 개인 역시 “(필요에 따라) 재조합될 수 있는 단순한 기능들로 진락”한 처지에 속하게 된다.⁴⁾ 몰 개성적 인간은 곧 몰 개성적 문화를 배태하고 이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 인자로서 개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감성을 차츰 둔감화 내지 무감화하는 것으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전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개성적 정체와 상호 교점을 지니지 못한 채 부유하는 몰 개성적 개인과 둔감화 되는 사회의 실체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견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어 3장에

4) 위의 책, 68쪽.

서는 개인의 감성이 둔감화 되면서 고유성을 잃어가는 사회에서 주체로서의 개인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기 서사 연출의 유효성을 가늠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동 불안정성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 방식과 자본화된 정보 시대의 대안으로서 연출적 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새로운 교점과 주체의 이중성(二重性)

앞서 1장에서는 기호자본의 금융화에 의해 개인 간의 교점(node)을 상실해갈 뿐 아니라 각 개인들의 인식 속에서도 물리적 결속 또는 결합의 계기로서 일상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노동-장(場)’이 지너 온 중요성이 축소되는 오늘날 사회의 문제적 양상을 거론하였다. 특히 한국 386세대의 ‘진정성’이 교통하던 ‘거리’와 ‘광장’ 등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집합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협의와 토론의 과정은 물리적 공간의 외부적 차단과 상실에 의해 실종되듯 사라졌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공통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던 곳은 공권력의 외압이나, 더 심각하게는 주체적 행위에 대한 무기력감 등에 의해 소멸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족근사치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집합적인 감성과 인식이 발견되는 공간은 변형 또는 진화된 양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참값에 더욱 가까울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정체성 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므로 상호 교점에 접근하기 위한 욕구는 지속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판단의 전제이다. 실제로 자의식의 표현과 이해에 대한 공유 욕구(요구)는 대규모 집합체를 통하기보다 개별적인 형태로 은닉되거나 혹은 다종의 소규모 집합을 통해 자본 경제적 코드—이해, 실리, 생산, 소비 관계 등—로 집중되며 방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⁵⁾

5) 물론 이러한 코드에 포섭되지 않거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이해관계 또는 공모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집합적 행위들도 발생해왔다. 가령, 유럽 난민 사태(2015)에 대한 세계적 구호 운동,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2012),

정치, 사회, 문화, 지역, 인종 등 인간의 인식과 성향의 내용을 변별하는데 쓰이는 수많은 기준들 중, 어느 단일한 기준에 쉽게 포획되지 않거나 조합 원인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집합단위의 행위 양상들이 존재한다. 가령,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촛불 집회⁶⁾, 범 계층적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불매 운동, 시국선언문 류의 규탄 행위, 초단위로 갱신되는 댓글이나 네트워크 매체 공간에서 선호되는 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법세계적 여론 혹은 지향 양상, 정보 공급과정의 개별화와 다변화를 통한 매체 권력의 유동성 등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도출하는 주체들은 일정한 범주의 계급이나 특정한 관계적 속성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결합과 행위의 구성 논리나 도출 결과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이해관계나 공모의 과정인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의 행위 양상이 가장 합리적인 생산 관계 혹은 그러한 관계로 변화하기 위한 집합적 결합 운동, 또는 그러한 관계를 표방하는 이들의 의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최소한, 이들의 행위 경계가 확정되거나 행위

‘포켓몬 고’ 게임사용자 속초행 열풍(2016), 일명 ‘솔로부대’의 짝짓기 플래시몹(‘솔로대첩’, 2012), 초(秒) 단위로 공유되는 정보와 댓글 여론 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감성적 규합의 전제와 분석에 관한 논구는 또 다른 논의의 장으로 넘기고 이 글에서는 개인 간의 교점 상실과 변형에 관한 관점의 적실성 정도를 논의하기로 한다.

- 6)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군 운전병의 만행과 그것을 용인하는 미군 및 정부를 규탄하는 반미 촛불 문화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시민 집회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로 이끈 주말 촛불 시위를 거치며 광장과 거리를 초환(招還)하는 듯 보인다. 촛불 시위는 참여 인원의 규모가 수백에서 수십만(2008)을 거쳐 수백만(2016)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금전적 경로를 통해 견인된 인력이라는 의혹이 무색할 만큼, 거대 군중은 다양한 주체적 참여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비를 들여 구입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며 시위 공간을 원래의 도시생활 공간으로 되돌리는 문화 의식이나, 집회의 참여 경로와 대상을 일정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구성의 계층과 집합단위, 콘서트나 퍼포먼스 등 집회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종의 참여 방법 등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 과정이 일종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문화제로 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상이 지속되거나 네트워크의 내용이 고정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한 사회적 집합은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며 포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들의 행위 실현은 그 현상의 존재 유무로 확인될 수 있을 뿐, 그 행위 현상은 끊임없이 은닉되거나 삭제되거나 변형됨으로써 고정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양상은 마치 끊임없이 요동하고 변형되는 인간의 감정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적 형태 속에서 고정되지 않은 구성원의 형질을 지닌 예측 불가능한 집합적 행위는 인간의 감성이 지닌 변형과 지향의 속성을 제외해두고는 설명되기 어렵다.⁷⁾

집합적 감정 교류의 욕구는 지속되면서 억압된 욕구가 변형된 방식으로 해소되는 여러 징후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천착이다. 개인들의 교점에 대한 욕구는 부유하는 자의식 속에 억압된 채 자리하다가 디지털 매체 공간이라고 부르는 욕구 표출을 위한 새로운 공간들이 생성되자 급속하게 그것을 주목하게끔 했다. 사이버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댓글을 포함한 각종 공감 표현 장치, 다종의 sns 계정 개설 등 관계 구성에 대한 방만한 욕구가 쉽게 발견되고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조정의 욕구가 부자연스러운 양태(일명 ‘sns 허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종임은 그러한 소통의 양태가 오늘날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접속과 폭넓은 정보 교류를 통한 공감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이자 ‘디지털화된 연대의 느슨한 관계망’인 것으로 설명한다.⁸⁾ 기성

7) 이러한 모호한 사회적 집합은 정치적 지향성을 지닌 의례 행위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령, 이 집합의 감정적 조건은 뒤르켐이 의례의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로 주목한 ‘공현전(co-presence)’ 현상의 집합열광이나 집합의식과도 변별될 수 있다. 모호한 사회적 집합은 ‘공통된 신념, 전통, 집합적 이상을 재생’(뒤르켐이 집합열광을 통한 변화 양상으로 지목하는)시키지 않는 의례행위를 포함하며 구현된다. 뿐만 아니라, ‘공유된 가치, 신념, 사교를 매개하며 감정을 유발시키는 집합표상’이 부재하거나 기존에 체험된 집합 흥분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구성될 수 있다. 행위 집합의 구성원들이 고정되거나 지속되지 않음으로써 이후 집회의 성격이나 구성 여부를 예상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8) 뿐만 아니라 이종임은 디지털 세대가 ‘직접적 접촉을 통한 인식보다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된 이미지에 익숙하며 이미지 소비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특성을 지니며, 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과 소통할 수

세대에 의해 상호 ‘무관심’으로 잊히기도 하는 디지털 세대 소통의 ‘느슨한 결합’은 해체의 가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쉽게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결합의 용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디지털화된 소통 방식의 양가성은 개인 간 교점이 상실된 배타적이고 단절된 사회에 대한 패퇴 의식과 허무감을 전환시킬 가능성으로 읽힌다.

이처럼 실체들의 노드점보다 감성적 규합의 장, 실천에 관한 ‘사유’의 집합이 확인되는 곳, 즉 인식적 네트워크 공간이 중요해진 시대에도 소통 지향성이 유지된 이유는 집합적 감성이 ‘자아정체감의 구성’이라는 큰 효용을 발휘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가치평가의 기준과 자기효용성, 자의식 등을 타자의 시선 또는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에 의해 확인하고 의미화하며 반영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단절되고 과편화된 인간관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로인한 자아정체감 혼미의 시대상을 우리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첫 10년(decade)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의 집합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386세대의 실천-장(場)이 쇠퇴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 간의 인식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디지털 세대의 공감-장(場)이 형성되는 시기 사이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소통을 위한 개인 간 교점의 상실은 그것이 실제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의식이 모호한 채로 사회 구성의 각 계급 층위에서 부유하는 인간형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인 것이든 집합적인 것이든 감성을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한 통로가 봉쇄되고 공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짐에 따라 소통의 통로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거나 삶의 균형이 파탄되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게 되었다. 가령, 7포 세대, 사토리 세대, 은둔형 외톨이, ‘묻지마 범죄’자, 무직자, 자라 증후군·캠겨루 세대 등으로 명명되는 이들의 경우에 타인의 삶에 대한 무관심과 관음증, 타인의 슬픔에 대한 애도와 냉소,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거부와 회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포와 유희 등, 소통과 자의식 형성의 욕구가 기형적으

있는 대상을 찾고 확인하고자 함’을 지적한다. 이종임, 『디지털 세대·문화·정체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3쪽~26쪽.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개인들의 상호 소통 욕구와 소통의 실현은 단절되었다기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부호화된 변이 양태로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로 분출된 결과로서 이중적 감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다.

부유하던 자의식이 욕구의 주체로서 그 공간에 이입하기 시작한 시점, 그것이 ‘거리’와 ‘광장’을 잃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의 양상을 읽어낼 수 있는 결절 지점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공간을 향한 개인들의 쇄도에서 발견되는 성질은 실상,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양면적이다. 첫째, 결합과 지속에 대한 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기호자본의 집적 공간이 오늘날 주체로서 정체성을 잃은 개인이 가 닿을 수 있는 정박지이자 집합적 소통 욕구를 해소하는 교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 자신의 요구와 욕구에 대응하는 총족적 대상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주체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非)주체적 인식으로 시작한 개인들의 행위가 주체적인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베라르디의 주장대로 “이제 금융적 축적은 유용한 재화의 교환이 아니라 공공재와 공공 노동의 산물에 대한 사유화에 근거”하며 “경제적 추상화의 법칙에 포획된 금융은 공통된 유용성의 해체에 기반을 두고 운용”⁹⁾된다. 즉, 사유화된 기호자본은 공통된 유용성의 해체를 통해 금융의 부피를 확대하고 사적 유용성에 기반을 둔 한정적 선택지를 유통시킨다. 결국 각 개인은 ‘선택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서동진은 “소비주체는 자유라는 가상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선택’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기계발 주체의 능동성이 예측성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기도 했다.¹⁰⁾

또한 우리의 ‘지금-이곳’은 지배적인 아비투스¹¹⁾가 점유한 채로 봉인된 사회(meritocracy)이다. 한국 사회의 정치는 지배적 아비투스를 위해 ‘선(先)을 잡는’ 투쟁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우세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연출적 도구를 점유하려는 싸움이다. ‘지금-이곳’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적 원리와 본성에 따른 가치 기준 대신 어떤 것이 공적(公的)이고 우세한 감정이며 상식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치가 유리하다. 이렇게 밀려난 선

9) Berardi, Franco, 앞의 책, 71쪽.

10) 박치현,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사회학: ‘속물’인가 ‘자기계발 주체’인가: 『마음의 사회학』(김홍중), 『자유와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서동진) 읽기, 『문학동네』 제17권 1호, 문학동네, 2010, 14쪽.

택지 위의 싸움을 거치며 행위자들은 무엇이 좋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유용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율적 감각과 선택하는 감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매체 공간에 대한 쇄도가 양면적 또는 양가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주체의 자연적 회복과 행복 지향의 사회로 귀결될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기형화된 감성은 양가적 성질을 간과하거나 방치할 때 부정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신경증적으로 타인의 가치 기준에 집착하되 타인과 변별되는 것에서 자존감을 확인하는 독존 의식, 타인의 삶에 대한 무관심과 관음증, 독립된 개성을 표방하지만 단독적이고 자율적인 선택 상황에 나타나는 경계와 조바심, 타인의 슬픔에 대한 애도와 냉소,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거부와 내재된 회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고통을 매개하며 이루어지는 유희를 동시에 지닌 채 기형화된 오늘날의 감성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감성의 양상을 복안(覆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주체와 연출의 유효한 상관관계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사회에서는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무용하거나 왜곡된 의미를 전달하며 폄하되기 쉽다. 유행처럼 타율에 의한 관성으로 움직이는 사회의 힘은 의외로 막강한 것이어서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무기력한 일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거나 대형 참사에 대한 수장의 애도가 기만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사태에 대한 판단은 무력한 개인들의 합보다 하나의 추상적 지배체제가 소유한 연출(mise en scène)의 힘에 달려있다.

미장센은 지배체제가 다분히 폭력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한 코드이다. 가령,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는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청각, 시각, 피부감각 등의 민감성과 지각 편향 등의 정보

수용 체계가 이전과 다른 정보 자극을 수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환될 때 가능해진다. 불을 켜거나 부드러운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영화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음을 확인하게 되거나 관심의 초점이 다른 일이나 사물에 맞추어질 때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공포는 끝이 난다. 같은 영상에 다른 배경 음악을 삽입했을 때 공포 영화는 희극이 되기도 한다.

대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지각 편향을 좌우하는 것, 이것이 연출의 힘이며 지배체제가 매체를 점유하고 은닉시켜 온 이유이다. 정치적 미장센은 개인의 자율적 감각을 타율적으로 조작하고 타성화하며 둔감화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 특히 지배체제가 주로 시도하는 연출적 구상은 공포와 단절, 모호함의 정서(mood)이다. 타율적으로 주도되는 이러한 감성에 대한 개인과 개인의 집합의 대항은 흔히 분절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전하기도 한다.

첫째, 지배체제가 구성하는 공포와 단절, 모호함의 정서를 순화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나 취미, 자기계발 활동 등을 통해 개인 영역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연대를 통해 안도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유입된 정서와 정보는 여전히 잔류하지만 그것에 필적할 만한 다른 긍정적 정서를 유입시켜 잔류한 정서가 더 이상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축구 응원이나 게임 유저 그룹 등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무관하게 우연히 결합되면서도 공고함을 발휘하는 연대의 예는 그 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정서가 새로운 집단 구성에서 오는 분위기 전환과 소속의 안정감에 기인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유입된 정서를 변형시키거나 아예 가중하여 실천의 기폭제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연출에 의한 공포나 분노의 정서는 때로 현실에 대한 과도한 위협으로 여겨지면서 연대 투쟁을 위한 인식과 탐색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공포와 연민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공분(公憤)의 감성으로 전환하며 이전의 감정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는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 항쟁(6.10항쟁, 광주오월항쟁, 제주 43항쟁 등)에서 확인된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연대 투쟁의 계기는 정치적 연출을 고발하고 사회의 모순적 구조를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창조 동력이나 사회문화적 숙고의 과정을 발동시키기도 한다.

이 같은 지배체제와 개인의 싸움은 전리품으로서 연출권을 상징하는 투쟁이며 타자에 의해 연출된 세계 혹은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자기의

서사 과정 안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연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들의 집합이 정치적 연출에 대항하는 이 같은 방법들의 공통점은 외부에서 이입되는 타율적 감성을 무력화시키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된 감각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이 본디 가지고 있는 감각적 민감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둔감화의 전략을 지닌 정치적 미장센이나 결집과 지속을 차단하는 기호자본주의의 속성에 대응할 기제를 생성한다. 다음 네그리의 ‘자기가치화’와 주체성 획득의 개념에 견주어 이해할 때 개인이 인식과 감성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가치기준의 자기결정권을 탈환하는 메리토크라시 대항 투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네그리에게서 “자기가치화”란 주체적 역능의 구체적인 실존을 의미한다. 주체의 역능은 피착취 계급의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보호한다. 요컨대 자기가치화란 주체로서의 노동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의 획득을 위한 실험들이 자본의 마법에서 풀려난 세계를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 접근법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이 (특정한) 형태 안에서/형태를 통해 실존한다는 것을 무시한다. 주체의 사회적 실존이 사회의 외부에 성립되어 있는 한 주체의 본질화는 여전히 추상적이다.¹¹⁾

정치와 연출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출력의 이데올로기적 사용에 앞서 개인의 감성을 결정하는 그 강력한 유용성에 있다. 감성적 연출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편입을 가져오며 정치가 수행해야 할 책무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유입된 정보의 성질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중개되는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대상 혹은 그 타자를 통해 자신의 감성을 재구성하는 연출의 과정은 곧 개인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외부적 세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구성하는 것과 기획과 의도에 따라 정보를 재구성하는 연출적 능력은 밀접한 연관 관계 혹은 인과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수진은 사회적 정체성의 연출과 개인의 주체 구성이 지닌 밀접한 상호 작용 관계에 대해 다

11) Bonfeld, Werner, 『인간의 실천과 전도-자율성과 구조를 넘어』, Negri, Antonio, etc., 김의연 역, 『탈정치의 정치학』, 갈무리, 2014, 130쪽.

음과 같이 언술하기도 한다.

주체의 위기는 사회적으로 유토피아의 꿈이 좌절된 현대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는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이성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 다다른다.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의 안정된 공동체,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사라지자 연극을 통해서도 사회적 정체성을 제시할 필요성을 상실한다. 결국 주체의 위기는 사회적 정체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또한, 조정식의 설명에 따르면 루소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자기 왜곡을 지적하고 있으며¹³⁾ “인간은 항상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조건 하에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구성하며 연출하는 존재로 파악”될 수 있다.¹⁴⁾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연출적 능력은 사회적 정체성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개인이라는 주체 형성의 영역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본성적 기제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연극의 시선을 빌려 보자면, “연출이란 예술적 해석이며 개성적 양식으로 간주된다. 연출가는 자신의 독특한 예술적 세계를 펼치기 위해 텍스트에 해석을 가하고 자신의 연출 미학적 양식으로 덧씌우기를 하여 무대화시키는 것이다.”¹⁵⁾ 이것은 개인이 매체를 통한 정보와 그것이 양산하는 또

12) 김수진, 『주체표현으로서의 연기: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새로운 연극성을 위한 연기양식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1쪽.

13) 사회구조가 위계질서로부터 기능주의로 바뀌고 사회의 지배담론이 신적 담론에서 인간담론으로 바뀐 이후부터 연출은 더 이상 신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넘겨지게 된다. 자유와 역할, “운명” 사이의 갈등은 이제 인간 자신의 본래적인 품성과 사회 내에서의 역할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으로 변화된다. 즉 시민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인 품성대로 살지 못하고 사회의 역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자기연출을 한다는 것이다. (...) 사회 속의 인간은 항상 남들의 가치 기준(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가면)에 따라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므로 항상 자신을 왜곡시켜야 하며, 이런 사회적 왜곡을 루소는 인간의 자기 소외 현상으로 파악한다. 조정식, 『문화적 연출: 화적 현상과 메커니즘으로서의 연출에 관한 연구』, 『괴테연구』 제20권, 한국괴테학회, 2007, 188쪽.

14) 위의 글, 193쪽.

15) 이선형, 『치유의 드라마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 연구』, 『드라마연구』 제41

다른 감성적 정보를 수용하고 편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제공된 텍스트를 해석하고 자신의 ‘연출 미학적 양식’을 통해 다시 ‘무대화’하는 적극적 존재로서 세계에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계(무대)를 객관화하고 통찰하여 배치와 실행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세계(무대) 속에 안착되어 흘러가는 인식과 감성에 매립된 채로는 가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체란 외부 세계나 현실 등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그것에 작용을 가하는 의지적 존재 또는 그것을 의식하는 것으로서의 자아를 말한다. 그리고 주체성은 의식과 신체를 가지는 존재가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하고 주위 상황에 적응하여 나가는 특성을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발적 능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이 같은 설명은 주체와 주체성을 성립시키는 요건의 핵심에 자율성과 능동성이 자리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전거들을 통해 주체의 성립 과정에서는 먼저 ‘관념(idea)’으로서 자신만의 ‘연출 미학적 양식’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어 텍스트로서 자기 서사와 정보를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능동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 해석과 재구성과 재현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리콤프가 말하는 ‘내레이션(narration)’의 역할을 수행한다.

리콤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내레이션은 자기-서사의 과정에서 실제 자신의 삶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삶의 지속성은 ‘나’를 구성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 자기-서사는 자신이 사회적, 자연적 존재임을 전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¹⁷⁾

연극영화의 고정된 텍스트에서 분절된 행위와 정서의 장(scene)으로부터 내레이션의 자기표현과 서사 해석 행위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인물의 통합적 정체(character)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개인의 주체 성립 과정에서 ‘나’를 구성하는 ‘해석’과 ‘표현’ 행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보

호, 한국드라마학회, 2013년, 141쪽.

16) 김수진, 앞의 글, 20쪽.

17) 위의 글, 76~77쪽.

자면, 연출과 주체의 관계에서 주체적 인식이란 연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출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극영화에서 연출이 아닌, 개인의 자아를 주체적인 서사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연출의 과정은 연출의 대상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난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서사라는 텍스트가 지니는 가변성은 연출의 난점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매체와 기호자본이 전략을 선회하도록 정체를 엄폐하는 방책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이야기는 문학 텍스트처럼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다. 참여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즉흥적이며 언제든 지 수정이 가능하다. (...) 배우가 관객이 되고 관객이 배우가 되는 드라마의 기능적 수단이 연극의 즉흥성이며 집단창작 방식인 것이다. 이들 방식은 상상력과 창조성을 활성화시키고 무의식을 표출시키기 위한 테크닉이며 제의적 원시연극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⁸⁾

위의 설명은 개인의 서사가 지니는 가변성의 긍정성을 지지한다. 수정 가능한 서사의 성질이 기존의 삶과 인식의 내용을 갱신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연출되고 유입된 감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창조적 자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성을 망라한 연출적 주체의 성립은 개인에게 스스로를 “텍스트로서 자기”¹⁹⁾로서 객관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의 상황이 마련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의식적으로 시도되었을 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출발은 불안정한 감성이나 인식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갱신될 필요가 없는 평온한 일상은 연출적 주체를 호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균열 혹은 관념의 변형이 가해지는 순간, 즉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가는 불안한 개인들에게 유효한 숙명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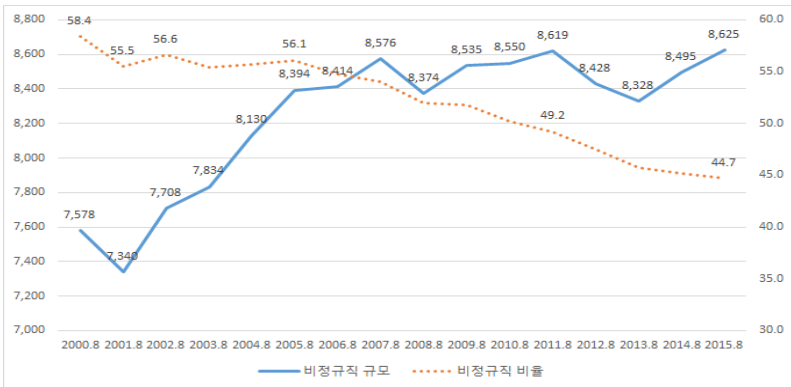
4. 각자도생(各自圖生), 프레카리아트(precariat)²⁰⁾와 연출적 주체

18) 위의 글, 162쪽.

19) 위의 글, 78쪽.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최근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19,312,000여명에 대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4.7%(8,625,000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²¹⁾ 아래 <그림 1>²²⁾을 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진경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응성

<그림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추이(2000~2015)



20) 무산자화되고 있는 노동자, 또는 무산자의 지대로 축출된 노동자를 뜻하여 이들을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 단어는 ‘불안정함’을 뜻하는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하여 만든 말인데, 국내의 ‘88만원 세대’,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후리타족(Freeta)’, 유럽의 ‘700유로세대’ 등 각국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니트(NEET)’는 물론 ‘히키코모리’나 미혼모, 가정폭력도피자(DV), 노숙자나 부랑자까지 포함하여 노동 가능하지만 노동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진경,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192쪽. 재인용.

2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 2015, 7쪽.

22) 위의 글, 5쪽.

이 곧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계급 자체의 규정성을 지우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²³⁾ 이중임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었던 사회적 계약관계, 즉 복종과 한시적 충성을 대가로 노동 보장이 제공되었던 복지국가의 거래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의 구성 신분과 변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²⁴⁾ 이는 곧 한국사회 노동자계급을 이해하는 도식 자체가 변형되고 있으며 사회·정치·문화의 운용과 변화에 작용하는 노동자 감성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과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단절된 경력과 불규칙한 수입지출 구조로부터 배태되는 불안정성, 즉 ‘자기정체성과 계급 규정성의 혼미 양상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계급 관계와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연계 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이 갖고 있을 모종의 가치 판단에 앞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규정에 관한 혼란은 역으로 그것을 안정 상태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욕구의 표출을 가져온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표출의 양상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형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을 지니고 어떠한 수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천착하는 ‘자기-계발’의 시도로, 다른 형태는 이 모든 천착과 사고로부터 탈출하여 문제적 욕구를 근본부터 무력화하고자 하는 ‘사고 전환’의 시도로 나타난다. 두 시도의 차이는, 오늘날 노동의 주된 양상이 ‘지적 또는 언어적 노동과 정동 노동으로 나누어지는 비(非) 물질 노동’²⁵⁾에 집약되고 있으며

23) Standing, G., "The Precariat in Korea and Basic Income", 『한국·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회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심포지움, 2010.08.19., 193쪽.

24) 이중임, 앞의 책, 55쪽.

25) 하트와 네그리(Hardt&Negri)는 비 물질 노동을 지식, 정보, 소통, 관계, 정동적(affective) 반응과 같은 비 물질적 생산물을 창조하는 노동으로 정의한다. 비 물질 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형태는 문제 해결, 상징적 및 분석적 업무, 언어적 표현과 같은 주로 지적이거나 언어적 노동을 일컫는다. 이러한 종류의 비 물질 노동은 아이디어, 상징, 코드, 기호, 텍스트, 언어적 형상, 이미지 등과 같은 생산물을 내놓는다. 둘째 형태는 정동 노동으로, 이것은 안도감, 복지, 만족, 흥분, 걱정과 같은 정동을 생산하거나 조작하

양분된 노동의 형태에 따라 감성적 대응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는 매체와 정보가 자본화되고 기획된 정보를 소비하는 역할에 안착한 개인의 둔감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사이버공간의 팽창)가속화와 정보의 과부하라는 조건 속에서 숙고나 의식적·정서적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일종의 표준화된 반응(자동화된 반응)” 속에 위축되면서 “감수성, 취향, 즐거움, 고통, 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분석 도구로서 우리 자신, 우리의 촉수, 우리의 신체, 우리의 심리적·성애적 반응성”을 상실하거나 왜곡시킨다.²⁶⁾ 매체 소비 사회의 개인은 자율적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할 신체와 그 신체에 결부된 고유한 감각과 정보를 잃어온 것이다.

삶의 다양한 순간에 제공되는 복잡한 정보를 자신이 처한 특수한 사회적 위치나 자신의 관념에 비추어 해석하면서 이어질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율성의 상실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양산한다. 자율성을 상실한 개인들은 고통과 슬픔과 같은 감성적 억압을 일상 속에서 해소할 의식을 구성해내지 못하고 복잡다기한 일례들에 대한 지침서들을 확보하기 위해 집착한다.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은 자신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과정보다 자동화된 반응으로 수행되며 오히려 수동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수행에 종속된 개인들에게는 지극히 사소한 해석과 실행을 위한 판단에도 불안함이 동반된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닌 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제적 욕구가 비롯된 정보의 구성 상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전체적 구성에 자신의 관념과 의지에 의한 자율적 변형을 가하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매체의 정보 구성에는 뉴스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 정보의 객관적 전달을 위한 기획 과정에도 예외 없이 특정된 연출이 적용된다. 자율적 변형은 이러한 연출의 방향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연출된 정보가 양산하는 인지적·감성적 결과의 수용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면서 자신의 구상에 의한 새로운 연출을 적용하는 것이다. 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나 사회적 화제에 대한 대중의 여론²⁷⁾ 등이 이 경우의 예로 들

는 노동을 말한다. 위의 책, 48쪽.

26) Berardi, Franco, 앞의 책, 163쪽.

27) 이 부분에서 ‘여론’이란 실체를 가진 대중이 입말이나 글말로써 자신의 생

수 있다.

‘사고 전환’의 시도가 지닌 또 다른 방향성은 문제적 욕구가 처한 정보의 구성 상태를 조망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나타난다. 이것은 단지 감각적으로 실태를 탈피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나, 반복적인 시도와 패퇴(敗退)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무기력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무기력감은 사회적 단절의식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냉담한 감성을 양산하며 때로 자기 파괴적인 수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7포 세대·사토리 세대, 은둔형 외톨이, 문지마 범죄 무직자, 자라 증후군·갱거루 세대’ 등으로 명명되는 개인 혹은 집합을 이 경우의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본 각 시도들은 개인의 정체감을 안정적으로 구성해내는 데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자기-계발’의 시도는 자기 탐구가 가능한 행위의 장(場)이 정작 자기 밖의 인식적·경험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탐구적 정보가 이미 자본화된 정보의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 정보-소비 구조를 반복하는 전략적 연출을 거친 전시(display)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다. 서동진은 자기계발 주체에 대해 “해방된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화의 권력에 예속된 주체”라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²⁸⁾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기계발 주체들은 최대의 자유를 투여하여 ‘자기 경영(self-management)’에 몰두한다. 독서행위마저 자기계발의 틀로 편입된다. 자기계발서들은 치부(致富)의 기술 뿐 아니라 자유의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자기계발서야말로 ‘진정성 상업화’의 최첨단을 표현한다.²⁹⁾

각을 표명한 결과의 집산을 의미한다. 흔히 매체를 통해 가시화되는 정보에 대한 ‘댓글 여론’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정보 해석을 위한 헤게모니를 지닌, 소위 직업적 지식인(journalist) 그룹의 논평 등은 이 부분의 ‘여론’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본다.

28)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317쪽.

29) 박치현,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사회학: ‘속물’인가 ‘자기계발 주체’인가: 『마음의 사회학』(김홍중),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서동진) 읽기』, 『문학동네』 제17권 1호, 문학동네, 2010, 12쪽.

또한 스탠딩에 의하면 “프레카리아트 대부분은 도시 유목민처럼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거의 모든 프레카리아트는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주는 윤리규범 및 균형감각의 원천이 되는 기억을 결여하고 있다.”³⁰⁾

불안정한 정체감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시도가 집중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규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경험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문제적 욕구를 생성하는 기호자본 중심적 사회의 고정된 틀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경험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정보자본인 자기-계발적 텍스트를 소비하는 것은 한시적 효용성만을 지닌다. 의존적 소비 체계를 공고화하여 결국 개인의 불안정한 정체감과 허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고 전환’의 시도 중 ‘감각적 탈피’를 욕구하는 행위의 측면은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개인의 양상 중 가장 문제적이면서, 동시에 사회 규범이나 집단적 인식이 변화해야 할 지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측면은 자기긍정과 계발을 이루는 한시적 효용성도 미비할 뿐더러, 개인의 자기성찰을 가로막음으로써 자율적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상실한 조악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근대의 ‘자기성찰’에서 성찰하는 자의 ‘자기’의 중심적 위치는 절대적이다. 이 절대적인 자기의 중심적 위치에서 근대의 개인은 자기를 대상화하고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를 반어를 통해 성찰하며 비판하는 행위, 즉 ‘자기반어’와 ‘자기비판’은 서구의 근대 개인이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자아’는 곧 ‘자기’로부터 거리를 취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³¹⁾

‘자기구성’에 관한 홍길표의 언술과 같이, 개인의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서사를 구성해내는 성찰적 행위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은 반복적인 시도와 패퇴의 과정에서 무기

30) Standing, G., 앞의 글, 149쪽.

31) 홍길표, 『근대 개인의 자기구성: “자기연출”과 “자기성찰”에 관하여: 칼 필립 모리츠의 『안톤 라이저』 연구』, 『괴테연구』 제19권, 한국괴테학회, 2006, 192쪽.

력감에 매립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즉, 삶의 지향점이 설정된 기준을 외부로부터 자신의 내부로 이동시키며 개인의 지향점 설정에 따른 자아실현 혹은 자아정체감 확보와 대비하여 사회와 개인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대가를 구별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고 전환’의 시도 중 ‘자율적 변형’을 가하는 행위의 측면은 긍정적 후과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외부적 세계,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인식 구조 속에서 그 세계와의 관계와 경험을 재구성하는 자기 서사 연출의 과정에 이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 서사는 ‘외부적 세계에서 얻거나 발견하게 된 객관적 정보가 개인의 고유한 감성과 관념에 의해 개별화된 상태’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자기 연출의 서사는 경험적 정보를 해석하고 삶과 행동의 준칙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한 신체감각이나 정동(情動)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 그 과정은 “나를 구성하는 신체, 인지, 정동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며, 나는 이 고유한 정보에 의해 지금 이곳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떠한 의미로 (이후 삶에) 맥락화 하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지속적 탐구 과정이다. 개인의 주체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타인의 준칙에 대한 위해 요소를 검열하고 조정하는 상호작용적 맥락화를 거쳐 세련되고 다시 고유한 것으로 환원되며 주체를 강화한다.

오늘의 정보시대에서 정보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장하고 연출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것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열을 내는 것이다. 정보는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차가운 유희’과 그 수요와 공급의 유희 속에서 사회적인 것과 그것의 연출을 소진시킨다. 사회계약의 조화와 균형 또는 사회적 관계의 이상(理想) 등 사회적인 것의 실체가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지면서 포착될 수 없는 파생실재의 사회성만이 존재하게 된다.³²⁾

이영자는 자기 연출력과 정보시대의 사회성과 자기 연출력의 대립적 관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켈너의 “사회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거나 변질시키는 과잉시물라시옹의 승리”³³⁾라는 비유를 빌려 오늘날 정보시대를

32) 이영자, 『불가역성의 사회』, 『프랑스학연구』 제33권, 프랑스학회, 2005, 165쪽.

비판한다. “포착될 수 없는 과생실재의 사회성만이 존재”하는 시대에 실체가 모호한 막대한 정보들이 인간의 신체적 감수성으로 수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벗어나 자본의 형태로 개인을 포섭할 때 개인은 노동자가 아닌 ‘노예’³⁴⁾로, 국가나 기업이 아닌 자본에 귀속된다. ‘과생실재’에 대응하는 ‘실체’의 구성을 고려할 때, 자기를 중심에 둔 행위 기준과 의미 변형의 시도는 ‘실체’를 형태화하고 강화하는 데 유효한 연출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보고 만질 수 있는 정량(定量)의 생산물이 인간의 상호 필요에 의해 교환·소모되고 그러한 실체에 대한 실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도와 문화가 양산되는 사회는 산업화시대 혹은 그 이전의 옛 사회상을 회상하기 위한 표본이 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회는 인간이 서로 밀착하여 감정과 이해를 교환하고 삶의 실체를 확인하며 도구와 관념 등을 수정해가던 사회의 미덕을 향수(享受)한다. 공감과 연대의 체계가 노동과 일상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의 개인들은 고립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기호자본의 금융화에 의해 개인들이 결합할 수 있는 인식적 혹은 물리적 장(場)으로서 교점(node)을 상실한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2장에서는 그러나 자의식의 공감과 인식

33) Kelner, D., *Jean Baudrillard, from Marxism to Postmodernism and Beyo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88.

34) 이 부분에서 ‘노예’는 삶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이나 행위의 내용, 방향 등이 타율적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체계에 변형을 가할 수 없거나 가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자본에 귀속된 일종의 생산 도구로서 노예는 개인만이 아닌 중·소규모 집단이나 젠더, 지역 등의 형태로도 개념화될 수 있다. 정보자본의 포섭관계라는 같은 전제를 지닐 때 노예의 역할은 관리·분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계급적 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적 공유에 대한 필요에 의해 개인이 ‘거리’와 ‘광장’과 같은 실체의 규합 공간과 다른 형태, 즉 디지털 매체 공간을 통한 주체 구성을 욕동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집적 양상이 그러한 소통의 욕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자본에 의한 개인 단절 혹은 소외 현상과 동시에 개인의 규합된 감성이 배태되는 이중성이 도출됨을 논의했다.

3장에서는 자본화된 정보의 한정적 소비 주체로 기능하는 개인들이 매체의 주된 상업 전략으로 사용되는 ‘연출’의 속성을 정보 재구성의 주체 입장에서 차용하는 경우에 유효한 상관관계가 도출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정체성 혹은 감성의 불안정성과 관련한 한국 사회 프레카리아트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 주체에 관한 논의를 자기 서사 연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불안정한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대응 양상이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직결되는 영향 관계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이 장의 논의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쟁점은 정보화된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실체’로서 주체의 구성 논의와 더불어, 한국 사회 노동의 축이자 감성의 축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정치적 구조, 혹은 연대적 감성 구조를 결정하는 거대 담론적 요소(가령, 헌법, 의결기구, 교육 제도 및 매체 등)에 대한 근본적 재구조화 혹은 재생산의 논의 없이, 특히 경제적 집합을 구성하는 사적 개인의 차원에서 매체화 시대의 주체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개인과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집합 단위의 상호 교섭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파편화된 개인의 층위에서 시대의 기대 역할로 개별적인 자기 서사 연출을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 서사를 획득하는 과정은 개인이 세계의 정보를 가치 있게 의미화 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기호자본에 예측된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투쟁의 요새선(Magnot line)’이다. 다시 말해, 매체자본에 의한 경제사회적 예측성과 단절된 관계를 통한 무력화(無力化)에 저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이며 개인과 사회의 주체적 삶을 설계하는 자의 최소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프레카리아트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변화된 세대 감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근대 감성을 규명하

매체 소비 사회의 감성과 주체의 연출

고 감성과 행위의 구조적 관계를 조망하는 행위이자 불안정한 감성의 장(場)을 변환·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출의 전초(前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길, 2007.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 윤수중, 『자율운동과 주거공동체』, 집문당, 2013.
- 이종임, 『디지털 세대·문화·정체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佐藤嘉幸, 『권력과 저항 :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김상운 역, 난장, 2012.
- Berardi, Franco,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 불안정성과 정보노동의 정신병리』, 정유리 역, 난장, 2013.
- Berardi, Franco, 『미래 이후』, 강서진 역, 난장, 2013.
- Deleuze, Gilles, 『경험주의와 주체성: 흠에 따른 인간본성에 관한 시론』, 한정현, 정유경 역, 난장, 2012.
- Diderot, Denis, 『배우에 관한 역설』, 주미사 역, 문학과지성, 2001.
- Hardt, Michael, etc.,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연구공간L 위음, 난장, 2012.
- Kierkegaard, Soren, 『주체적으로 되는 것』, 임규정, 송은재 역, 지식의만드는지식, 2012.
- Negri, Antonio, 『탈정치의 정치학』, 김의연 역, 갈무리, 2014.
- Simmel, Georg, 『배우의 철학』, 신소영 역, 연극과인간, 2010.
- 강민규, 『이미지즘 시의 공간 연출(演出)과 시 읽기 교육 -정지용과 김광균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9-47(39).
- 김 건, 『디드로의 냉정(Sang-froid) 이론에 관한 연구: 『배우에 관한 역설』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6권,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6, 25-42(18).
- 김수진, 『주체표현으로서의 연기: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새로운 연극성을 위한 연기양식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옥경, 『로크에서 기억과 근대적 개인의 자기정체성』, 『철학논집』 제42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5, 261-289(29).
- 박치현,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사회학: ‘속물’인가 ‘자기계발 주체’인가: 『마음의 사회학』(김홍중),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서동진) 읽기』, 『문학동네』 제17권 1호, 문학동네, 2010, 1-16(16).
- 윤학로, 『디드로의 연극론-『배우에 관한 역설』읽기』, 『프랑스학연구』 제15권, 프랑스학회, 1997, 93-107(15).
- 이광일,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3호, 2013, 115-143(29).
- 이병욱, 『매체문화에서 주체의 해석학적 역할』,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0권, 한국현상학회, 2006, 219-240(22).
- 이 석, 『김준오 시론의 페르소나(persona) 문제 연구- 『詩論』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2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179-211(33).
- 이선형, 『치유의 드라마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 연구』, 『드라마연구』 제41호, 한국드라마학회, 2013, 137-167(31).
- 이영자, 『불가역성의 사회』, 『프랑스학연구』 제33권, 프랑스학회, 2005, 147-169(23).
- 이진경,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1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173-201(29).
- 임운택,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경제와 사회』 제107호, 비판사회학회, 2015, 12-43(32).
- 정혜경,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페르소나 기법 연구: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제40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29-38(10).
- 조경식, 『문화적 연출: 화적 현상과 메커니즘으로서의 연출에 관한 연구』, 『괴테연구』 제20권, 한국괴테학회, 2007, 183-205(23).
- 홍경자, 『새로운 매체문화에서 주체, 의미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 - 정보해석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96권, 대한철학회, 2005, 455-476(22).
- 홍길표, 『근대 개인의 자기구성: “자기연출”과 “자기성찰”에 관하여: 칼 필

립 모리츠의 『안톤 라이저』 연구』, 『괴테연구』 제19권, 한국괴테학회, 2006, 177-195(19).

Abstract

The Emotion of Media Consumption Communities and Self-directing Subject

Choe, Hye-Gyeong(Chonnam Univ.)

In today's society, it is difficult to configure autonomous and individual sensibility. Instead, it is just barely available Selective acceptance or posterior editing for various collective emotion. In this society, it become to Individuality and Distinctive features that various acquisitions of collective Feelings than Unique recognition of individuals or emotion.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cause to bring the loss sensitivity and autonomous judgment on the social situation

In other words, a critical mind of this article is on the corresponding of individuals in Korea's society to isolation and anxiety. Today, in Korea's society, a world of sympathy and solidarity by the needs of the labor and everyday does not appear spontaneously. Discussion of this is started to instability in South Korea due to Financialization of semiocatital.

And Chapter 2 pointed out that there was different from a personal desire and the configuring subject through the digital media space a space that brings together entities by the need for empathy and self-awareness of cognitive share. Also, it noted the duality drawn up the rallying sensibilities of individuals with the phenomenon of personal disconnection or alienation according to information capital are shown together. The reason for that duality is considered because an such integrated aspect for digital media is due to the desire for communication.

In Chapter 3, I discussed that a valid correlation can be derived if

individuals serves as a limiting consumption principal of capitalizing information are using the properties of the 'directing' or 'self-directing' using by the main strategies in medium industry.

Chapter 4 analyzes the aspects of identity or correspondence of Korean precariat with respect to the instability of the sensitivity and presented a discussion on these subjects In relation to the needs of self-directed epic.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be an act of identifying an altered generation sensitivity of Korean society and an attempt to overlook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eelings and actions.

▣ Key words: media consumption communities, semicapitalism, subject, directing, self-directing subject, emotion, precariat

접수일자: 2016. 10. 27 심사일자: 2016. 12. 19 게재결정: 2016. 12. 20

